

대한제국기 어진 모사 및 도사 관련 오봉병 연구*

손명희**

- I. 서론
- II. 대한제국기 어진 제작 절차와 장소별 오봉병의 유형과 기능
- III. 오봉병 유형별 상황과 화풍 분석
- IV. 결론

I. 서론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은 황제권 강화를 위해 태조어진을 적극 활용하고, 본인의 어진과 황태자의 예진을 제작했으며, 화재로 소실된 선원전 칠성조(七聖朝) 어진에 대한 모사 작업도 긴급하게 진행했다.¹ 경운궁 선원전 제1실에 태조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행해진 모사 작업에 대한 『영정모사도감의궤』(1899~1900), 소실된 칠성조 어진의 모사와 증건된 선원전 봉안 내용을 기록한 『영정모사도감의궤』(1900~1901), 고종어진과 순종예진의 도사 작업 관련 기록인 『어진도사도감의궤』(1901~1902)는 어진의 모사와 도사, 그리고 새로 제작한 어진의 봉안 과정에서 사용된 다양한 오봉병(五峯屏)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²

* 이 논문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과제(NRICH-2505-A63F-1) 수행을 통해 작성하였다.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복원기술연구실장

1 신명희, 「대한제국기의 어진 제작」, 『조선시대사학보』 33 (2005), pp. 245-280; 조인수, 「전통과 권위의 표상: 고종대의 태조 어진과 진진」, 『미술사연구』 20 (2016), pp. 29-56.

2 근래 일월오봉도로 통용되는 병풍에 대해 문헌 기록의 다수가 오봉산병풍, 오봉산병, 오봉병풍, 오봉병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오봉병을 기본 용어로 하되, 장자형과 펴고 접는 첩병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병풍의 명칭 작성 시

기존 어진 관련 의궤의 오봉병 제작 및 수보(修補)에 관한 기록에 주목하고 이들 오봉병의 종류, 도상의 의미, 그리고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³ 그러나 현전하는 조선시대 어진 관계 의궤 및 당시 알려진 오봉병 전반을 대상으로 의미와 양식을 도출하고자 했기에, 대한제국기 어진 관련 오봉병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다. 1900~1902년에 연이어 이뤄진 어진 제작 관련 의궤의 기록은 모사, 봉심 또는 양첩, 봉안 등의 절차에 따른 장소별 오봉병의 다양한 유형 및 함께 배설된 병풍과 의물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개별 오봉병의 크기와 장황 등 세부 사항을 상세히 담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현존 오봉병 대부분이 원래의 배설 장소와 분리되어 전해지고, 수보와 개칠로 제작 시기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용처와 기능, 나아가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⁴

본 논문은 먼저 1900년에서 1902년에 걸쳐 편찬된 의궤 기록을 바탕으로, 어진 모사·도사의 주요 절차에 따라 행사 공간에 배설된 오봉병의 유형과 형식, 크기, 배설 방식 등을 검토하여 해당 병풍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 오봉병 유형별로 제작 시기와 배설 공간에 따른 장황 구성을 분석한 뒤, 현존 오봉병과 비교함으로써 대한제국기 어진 제작과 관련된 오봉병을 확인하고, 병풍의 화풍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대한제국기 어진 제작 절차와 장소별 오봉병의 유형과 기능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로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899년 12월 고종은 태조 및 직계 5대조의 조상들을 황제로 추승하고, 경운궁 선원전 제1실에 태조어진을 봉안하도록 명했다.⁵ 이를 위해, 영홍 준원전 봉안 태조어진을 경운궁으로 옮겨 모사본을 제작하도록 한 뒤 영정모사도감(影幀摹寫都監)을 설치했다.⁶ 본격적인 태조어진 모사 작업은 1900년 3월 21일(음력) 준원

첩병은 '오봉도 8첩 병풍'처럼 첩수를 오봉도 뒤로 적고 원문을 병기하겠다. 도상 설명 시에는 일월오봉도를 사용하겠다. 유물의 경우 소장처의 유물명을 따른다.

3 이성미, 「朝鮮王朝 御眞關係 都監儀軌」,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95-118.

4 근정전과 중화전 당가 오봉병 등 소수를 제외하면 사용처와 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봉병은 의물이었기에 제작 이후 수보와 개칠이 행해졌으며, 보존 처리에 대한 철학과 기준이 미비했던 시기에 보수되며 훼손 부위에 가필과 가칠이 이뤄져 양식 분석과 제작 시기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5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1899) 12월 7일 양력; 12월 31일 양력.

6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1899) 12월 31일 양력.

전 태조어진을 한양으로 옮겨 경운궁 흥덕전 서쪽 온돌에 봉안하며 시작되었다.⁷ 흥덕전 서온돌에는 오봉도 육첩 병풍(五峰山屏六貼)이 펼쳐졌다.⁸ 당시 흥덕전 대청에 가방(假房)을 가설해 모사 장소(摹寫處所)로 사용했기에, 흥덕전 서온돌의 오봉도 육첩 병풍은 준원전에서 옮겨 온 태조어진의 임시봉안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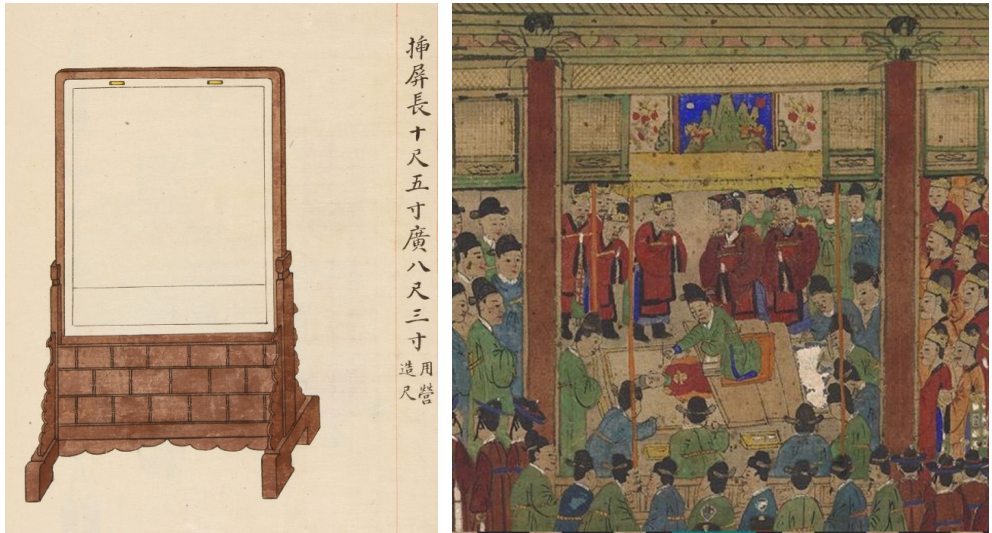


Fig. 1. <삽병(插屏)>, 『영정모사도감의궤』 Illustration of a Single-panel Five Peaks Screen with a Wooden Frame, in *Yŏngjŏng mosa togam ūigwe*, 1899~1900, Korean Empire, Ink and Colors on Pap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s://kyudb.snu.ac.kr>)

Fig. 2. 채용신, <평생도> 제5폭. Ch'ae Yongsin, Detail from the 5th Panel of *P'yongsaengdo* Ten-panel Folding Screen, Early 20th Century, Colors on Cotton, National Museum of Korea (<https://emuseum.go.kr>)

모사를 마친 후 흥덕전 대청에서 고종과 여러 신하들이 구본과 신본 어진을 살펴보는 양침(仰瞻) 절차를 위해 길이 10척 5촌(약 320cm), 너비 8척 3촌(약 250cm)에 이르는 대형 삽병 2좌가 배설되었다.¹⁰ 『영정모사도감의궤』(1899~1900) 「도설」 속 삽병은 사각형 틀을 나무

7 『影幀摹寫都監儀軌』(1899~1900), 「時日」.

8 위의 책, 「稟目」, 庚子二月初三日. 오봉도 육첩 병풍의 크기는 사용된 사면우리 좌우의 크기에서 높이만을 유추할 수 있는데, 7척 4촌(약 226cm) 가량이었다. 이 병풍과 함께 배설된 하평상과 용상의 크기가 각각 길이 7척 3촌(약 223cm)에 너비 3척(약 91.7cm), 길이 7척(약 213.9cm)에 너비 2척 7촌(약 82.5cm)이므로, 하평상 위로 용상을 배치한 뒤쪽 벽면으로 병풍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9 위의 책, 庚子二月初六日. 임시 봉안 시 어진은 어진 함에 말아 넣어 모셨다.

받침대에 끼운 병풍으로 전면에 그림이 묘사되어 있지 않으나, 삽병 제작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가 1900년 선원전 화재 후 소실된 칠성조 어진의 모사 과정을 기록한 『영정모사도감의궤』(1901)에 묘사된 삽병과 동일해 나무틀 내 화본에 일월오봉도가 그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Figs. 1, 3).¹¹ 양침 시 배설된 삽병의 모습은 1900년 태조어진 모사를 담당했던 어진화사 채용신의 일생을 담은 <평생도> 제5쪽에서 찾아진다(Fig. 2). 제5쪽은 채용신이 어진을 모사하고 있는 모습을 고종과 신하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일부 재구성되었지만, 1900년 태조어진 모사 당시 흥덕전 대청에 행해진 ‘모사’와 ‘양침’을 한 화면에 병치하며 배설된 주요 의물들의 특징적 모습을 포착해 내고 있다. 내왕판(來往板)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채용신은 황색 칠을 한 가는 기둥과 그 위로 친 황색 휘장(仰帳)으로 이뤄진 공간 안에 있다. 이 공간은 위에서 언급한 모사 처소로 흥덕전 대청에 가설한 방(가방)의 기록과 일치한다.¹² 가방의 황색 양장 너머에 보이는 대청 안쪽 분합문 앞으로 일월오봉도가 나무틀 내에 그려져 있어 삽병의 윗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삽병 좌우로 묘사된 괴석·모란 그림 일부는 양침을 위해 삽병 2좌와 함께 제작되어 매 삽병 뒤로 펼쳐진 모란도 육첩 병풍(牧丹屏六貼)이다.¹³ 오봉병만 펼쳐진 흥덕전 서온돌과 달리 모란병풍이 배설된 데는 국왕과 많은 신료가 참여한 양침 행사의 중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에는 생략되었으나 삽병 하단 앞으로 하평상과 용상이 놓이고, 동일한 구성의 의물들 일습이 옆에 나란히 배치되었을 것이다.¹⁴

양침 공간을 조성한 모란병풍, 오봉도 삽병, 하평상 및 용상은 모란장자, 당가 오봉병-하평상, 용상으로 이뤄진 선원전 감실 구성을 연상시킨다.¹⁵ 그런데 선원전 감실과 달리 흥덕전 대청에는 어진 전봉을 위한 장치가 없었다. 삽병은 상단의 회룡통(回龍桶)과 전봉줄(展奉槌)이 있었는데, 이들 장치는 화원의 모사 작업을 위해 건정기(乾淨機), 내왕판 등과 함께 만들어져 태조어진 구분과 유지(油紙) 모사본(초본)을 펼쳐 봉심할 때 사용된 괘봉기(掛奉機)에서 찾아진다.¹⁶ 삽병의 형태와 크기 또한 괘봉기와 거의 동일했다. 다만, 괘봉기가 전면에 백능화지

10 위의 책, 「품목」, 庚子二月十六日; 「圖說」, 挿屏.

11 위의 책, 「품목」, 挿屏二坐每坐所入;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품목」, 庚子九月初九日, 挿屏六坐每坐新造所入.

12 석자황으로 기둥 칠을 하고 황정주(黃鼎紬)로 양장을 만들었다. 『영정모사도감의궤』(1899-1900), 「품목」 庚子二月十六日.

13 『영정모사도감의궤』(1899-1900), 「품목」, 庚子二月十六日.

14 하평상, 용상의 너비는 각 7척 3촌(약 223cm)과 7척(약 213.9cm)으로 삽병보다 작았다. 위의 책, 「도설」.

15 손명희, 「조선 후기 선원전의 제물과 제기, 의장, 그리고 봉안 어진의 성격과 기능」, 『미술사학연구』 312 (2021), pp. 47-56.

16 『영정모사도감의궤』(1899-1900), 「품목」, 庚子二月十六日.

를 바르고 남색냉금전지(藍冷金箋紙)로 회장을 두른 반면, 삼병은 비단 바탕에 일월오봉도를 그리고 무늬가 있는 비단 장황과 철물 장식으로 위엄과 품격을 높였다.¹⁷ 도르래인 회룡통과 전봉줄을 갖춘 일월오봉도 삼병은 어진을 펼쳐 모시는 기능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진 어진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어진 신분을 선원전에 봉안하기 위해 고종은 기존 경운궁 선원전 제1실의 윗 공간(上空間)을 새로운 제1실로 조성할 것과 이를 위해 기존 제1실에서 제6실에 봉안되었던 어진들을 먼저 이안청(移安廳)에 옮겨 모실 것을 명했다.¹⁸ 기존 이안청 의물들이 낡고 손상되었기에, 오봉도 사첩 병풍(五峰屏四貼) 7좌 및 용상·하평상 각 7좌가 새롭게 마련되었다.¹⁹ 오봉도 4첩 병풍의 배설은 모란병풍의 미사용과 함께 도성 내 공식 진전인 영희전 이안청의 선례를 연상시킨다.²⁰ 선원전 내 새로운 제1실(태조실) 조성을 위해서는 당가오봉병(唐家五峰屏八貼) 1좌가 당가, 하평상, 모란도 4폭 장자(牧丹障子四貼), 매화도 장자(梅花障子), 용상 등과 함께 새로 제작되었다.²¹ 이러한 감실 의물 구성은 서벽의 매화도 장자, 북벽의 4폭 모란도 장자, 당가와 하평상 사이의 삼면 오봉병, 그리고 용상 등으로 이뤄진 현전하는 신선원전의 감실 구성과도 상통한다. 한편, 선원전 제1실 의물 조성과 함께 준원전 태조어진을 다시 영흥으로 옮겨 모실 때 준원전 감실 내 주벽(主壁)에 바르기 위한 오봉병화본(五峯屏畫本) 1건을 새롭게 만들어 보낸 점도 특기할 만하다.²²

경운궁 선원전 제1실에 태조어진을 봉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7개 실에 봉안된 일곱 국왕의 어진과 당가 및 오봉병 등의 의물이 모두 불타버렸다. 고종은 즉시 이모도감(移募都監)과 중건도감(重建都監)을 합설해 행하도록 명하며 칠성조의 어진 모사와 선원전 중건 작업을 서둘러 추진했다.²³ 1900년 윤8월 흥덕전을 칠성조 어진 모사 장소로 정하고, 삼병 7좌와 함께 모란도 육첩 병풍 7좌, 괘봉기 4좌, 용상과 하평상 각 5좌를 준비하였다.²⁴

17 위의 주, 掛奉機二坐每坐所入.

18 위의 책, 庚子四月初三日.

19 위의 주, 移安廳入排五峰屏四貼七坐每貼所入.

20 손명희, 「영희전 감실 및 이안소의 공간 구성과 오봉산병풍의 특징」, 『문화재』 56, no. 2 (2023), pp. 110-112.

21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 「품목」, 庚子四月初六日.

22 위의 책, 「訓令」, 庚子四月初二日. 오봉병화본은 양사에 일월오봉도를 그린 후 가장자리를 따라 두른 띠(회장)와 아래위로 덧댄 비단(상하선) 모두를 남공릉으로 장식했으며, 변이에 백방사주와 홍방사주를 둘렀다. 회장 위로 금박 장식을 한 기록은 없다. 오봉병에 남색 비단으로 회장을 두른 드문 사례이다.

23 『고종실록』 권40, 고종 37년 10월 14일 양력.

24 『영정모사도감의궤』 (1900-1901), 「稟目」, 庚子九月初九日;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 (국립고궁박물관, 2013), pp. 228-242. 이전 제작한 의물을 신조한 것과 함께 사용했다. 삼병 1좌도 이전 것이었다. 插屏(一坐前排)六坐每坐新造所入.

직전 태조어진 모사 당시 준원전에서 모셔 온 태조어진의 봉안과 양침에 각각 오봉도 육첩 병풍과 삼병을 구분해 사용한 것과 달리, 준원전, 영회전, 육상궁 냉천정, 선회궁 평락정에서 옮겨온 칠성조 어진의 경우 봉안 때부터 7좌의 삼병을 마련해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다량의 어진을 한꺼번에 모사해야 했기에 어진 봉안 공간을 장식하면서 펼쳐 살펴보는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삼병의 배치는 공간 마련과 모사 작업 진행에 있어 효율적 방안이었을 것이다. 이때 사용한 삼병의 크기는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병풍틀 사면우리(四面丐里) 제작을 위해 길이와 너비 각 9척 5촌(약 290cm)과 7척 5촌(약 229cm)을 기준으로 부재를 들이고 있어, 1900년 태조어진 양침에 쓰인 삼병보다 1척(약 30.55cm) 넘게 작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⁵ 일월오봉도를 그린 각 삼병 뒤로 모란 병풍을 배설한 점도 눈에 띄는데, 선원전의 소실과 열성 어진을 한 공간에 옮겨 모셔 모사하는 중대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칠성조의 어진 모사가 완료됨에 따라 흥덕전에 봉안된 구분들 중 태조를 제외한 6성조의 어진 구분은 원 봉안처로 다시 보내졌다. 그러나 멀리 영흥의 준원전에서 옮겨온 태조어진은 경운당(慶運堂, 이후 정관헌)에 환안 준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셔졌으며, 칠성조 어진 신본(정본)들은 새 선원전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기존 극조당 건물이었던 중화전(中和殿)에 봉안되었다.²⁶ 태조어진을 임시로 모신 경운당에는 전에 사용한 패봉기 전면의 백능화지를 떼어 내고 양사(洋絲)로 된 화본에 일월오봉도를 그려 붙인 후 비단으로 장황해 개조(改造)한 삼병이 배설되었다.²⁷

칠성조 어진 신본을 임시로 모신 중화전에는 어진 모사를 위해 흥덕전에 배설했던 병풍, 상탁 등을 옮겨 사용하고자 했으나 건물 구조가 비좁아 들이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옮겨 쓸 수 있는 것은 옮겨 오봉도 사첩 병풍 7좌와 함께 매화도 사첩 병풍(梅花屏四貼) 2좌, 용상 2좌, 하평상 2좌 등을 새로 마련했다.²⁸ 중화전 내 오봉도 사첩 병풍 7좌는 뒤·좌·우 삼면으로 각각 펼쳐져 7개의 공간을 일렬로 조성하고 그 안에 하평상과 용상을 둔 것으로 보인다. 모사 장소였던 흥덕전에 모란도 6첩 병풍을 일월오봉도 삼병 뒤로 펼친 것과 달리, 중화전에서는 매화도 사첩 병풍 2좌를 기존 선원전 감실 공간(閤內)의 동·서쪽에 매화장자를 배설

25 위의 주.

26 『영정모사도감의궤』(1900~1901), 「품목」, 庚子十二月十七日·辛丑一月十日.

27 위의 책, 「품목」, 庚子十二月十八日. 준원전 태조어진의 크기가 다른 어진에 비해 컸기 때문에 이전 태조어진 모사 시 썼던 패봉기를 개조해 다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위의 주; 『국역영정모사도감의궤』(2013), p. 279. 이때 옮겨 쓸 수 있는 것은 옮겨 쓰고 그 나머지를 새로 준비하였다.

한 예에 따라 일렬로 배설된 오봉병 7좌의 양 끝에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⁹ 흥덕전의 모란병풍을 좁은 중화전에 들일 수 없고 새로 7좌의 모란병풍을 제작하는 것도 무리인 상황에서 전내 동·서쪽에 펼쳐지는 매화도 사첩 병풍 2좌는 효율적 대안이었을 것이다.

1901년 4월 27일(음력) 새로 모사한 칠성조의 어진을 중건(重建)한 경운궁 선원전에 봉안했다. 이때 선원전 정전 내 감실 조성을 위해 주요 의물인 당가오봉병 7좌를 비롯한 당가와 하평상각 7좌는 기존 경복궁 선원전의 것을 옮겨와 수리해 사용하였다.³⁰ 칠성조의 어진 신본이 선원전에 모셔짐에 따라, 중화전에 배설되었던 오봉도 4첩 병풍 7좌는 용상 7좌, 분합 면장 5건과 함께 경운궁 선원전 이안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³¹

1901년 9월 27일(음력) 고종은 10년마다 한 번씩 어진을 도사한 영조와 정조의 아름다운 전례(前例)가 있었으나 즉위 10년이 되던 해인 1872년 본인의 어진을 그린 이후 틈이 없어 못 하던 것을 이제 도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후, 다음날 어진도사도감(御眞圖寫都監)의 당상과 낭청을 임명하고 어진과 예진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였다.³² 고종의 어진 도사 추진은 이듬해인 1902년이 고종의 즉위 40주년과 망육순(51세)이 되는 해였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³³ 고종 어진과 황태자 예진의 제작은 1902년 2월 어진 도사 화원 선발을 위한 시재(試才)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³⁴ 1902년 음력 2월 정관헌(靜觀軒)을 어진과 예진의 도사 장소(圖寫處所)로 정하고 화원의 도사를 위해 고종과 황태자 순종이 자리할 어좌담(御座榻), 교의(交椅) 등을 마련했으나, 오봉병은 배치하지 않았다.³⁵

3월 함녕전(咸寧殿)에서 고종과 신료들(諸臣)이 함께 행한 어진과 예진의 유지초본(油紙草本)에 대한 양침(仰瞻)을 위해 삼병 6좌가 준비되었다.³⁶ 양침 시 패봉축(掛奉軸)과 반용상(半龍床) 각 10좌, 패봉기 4좌가 삼병과 함께 배설된 점에서, 어진을 펼치는 기능을 하는 패봉기와 삼병이 혼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병 4좌는 기존 것을 사용하고 2좌만 새로 만들었는데, 신조한 삼병 2좌는 길이 8척 3촌(약 253.6cm), 너비 6척 2촌(약 189.4cm)으로 앞서 1900

29 위의 주, 梅花屏四貼二坐每貼所入.

30 위의 책, 「時日」, 辛丑四月二十七日; 「품목」, 辛丑三月十二日. 손명희, 앞의 논문 (2021), p. 48.

31 위의 책, 「품목」, 辛丑四月十一日.

32 『御眞圖寫都監儀軌』(1901~1902), 時日; 詔勅, 辛丑九月二十七日; 『고종실록』 권41, 고종 38년 11월 8일 양력.

33 신명호, 앞의 논문, p. 83; 『璿源譜略修正儀軌』(1902~1904), 壬寅五月十九日. 이때 고종 어진은 총 5본, 순종 예진은 총 6본이 제작되었었다.

34 『어진도사도감의궤』(1901~1902), 「時日」, 壬寅二月初三日; 「稟日」, 壬寅二月初七日.

35 위의 책, 「품목」, 壬寅二月十三日

36 위의 책, 「시일」, 壬寅四月初八日; 「품목」, 壬寅二月初七日; 壬寅二月十三日; 壬寅三月二十日.

년 태조어진 모사 및 1900~1901년 칠성조 어진 모사에 사용된 삼병들과 비교할 때 크기가 가장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음력 4월에는 도사한 고종어진과 순종예진의 정본(正本)을 봉안하기 위해 경운궁 흙문각(欽文閣)에 오봉도 팔첩 병풍(五峯山屏八貼) 2좌를 새로 만들었다.³⁷ 오봉병의 각 폭은 길이가 4척 5촌 6분(약 139.3cm), 너비가 1척 5촌 2분(약 46.44cm)으로 8첩 병풍임을 고려하면 전체 가로가 약 371.5cm에 높이가 약 140cm가 안 되는 낮은 병풍이었다.³⁸ 어진의 임시 봉안 시에는 어진을 함에 맡아 넣은 후 함을 용상 위에 올려 모시고 오봉산 병풍을 펼쳐 에워쌌다. 낮은 병풍이었지만 뒤로 가운데 4첩을 펼치고 좌우로 각 2첩을 앞으로 접어, 하평상 위에 놓인 용상을 충분히 좌·우·뒤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크기였다.³⁹

1902년 8월(음력)에는 서경(西京, 평양)에 건립 중인 행궁(풍경궁)에 고종의 어진과 황태자의 예진을 봉안할 목적으로 흙문각에서 고종어진과 순종예진 각 1본을 옮겨 서경 관사에 임시로 안치하였다.⁴⁰ 서경 관사에는 오봉도 4첩 병풍(五峯屏四貼) 2좌가 용상 2좌와 함께 배치되었으며 하평상은 사용되지 않았다.⁴¹ 이 오봉도 4첩 병풍은 길이가 7척 7촌(약 235.2cm)이고, 가운데 두 폭과 좌·우 두 폭의 너비가 각각 3척 7촌(약 113cm)과 3척 1촌(94.7cm)으로 영희전의 오봉도 4첩 병풍처럼 가운데 두 폭의 가로 폭이 좌·우 두 폭보다 넓은 형태였다.⁴² 이 병풍은 가운데 두 폭을 뒤로 펼치고 나머지 두 폭을 좌우로 접어 어진 함을 올린 용상을 삼면으로 에워싸고 서경의 관료와 지역민들에게 어진이 모셔진 공간의 위엄을 드러낼 만큼 제법 큰 규모였다.

이상과 같이 1900~1902년 행해진 대한제국기 어진 모사·도사 작업 시에는 삼병, 칩병(疊屏, 貼屏), 당가오봉병 등 다양한 유형의 오봉병이 사용되었는데, 어진 제작 관련 기록에서 처음 나타난 삼병이 이 기간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어 주목된다. 삼병은 모사 작업을 위한 궤봉기처럼 전용 장치를 갖추었으나 일월오봉도 그림과 비단 장황으로 의물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37 위의 책, 「품목」, 壬寅四月十一日.

38 위의 책, 「도설」, 五峯屏. 도설의 병풍 크기는 위의 주에 나온 제작 기록과 대조할 때 병풍 틀 한 폭의 크기다.

39 위의 책, 「도설」, 龍床, 黑長橫; 「품목」, 下平床一坐新造所入. 흑장계는 길이 4척 1촌(125.3cm), 너비 9촌 6분(29.3cm), 높이 7촌 6분(23.2cm), 용상은 길이 5척 9촌 8분(182.7cm), 너비 2척 6촌 4분(80.7cm), 높이 7촌 3분(22.3cm)이었다. 하평상은 대략 길이 6척 2촌(189.4cm), 너비 3척 1촌(94.1cm)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40 위의 책, 「時日」, 壬寅八月十六日·二十三日. 신명호, 앞의 논문, pp. 268-269.

41 위의 책, 「稟目」, 壬寅五月十六日.

42 위의 주, 五峯屏四貼二坐. 영희전 오봉병 보다 약간 작은 크기다. 영희전 병풍의 크기는 손명희, 앞의 논문 (2023), pp. 110~112.

드러내며 어진을 펼쳐 모시는 물리적 기능과 함께 펼친 어진의 위엄과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물로 기능하였다. 태조어진 신·구본에 대한 고종과 신하들의 양첩을 위해 배설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어진의 임시봉안 공간 조성 및 유지초본 봉심에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 한편, 첩병풍의 경우 사첩, 육첩, 팔첩 병풍 모두 어진의 임시봉안용으로 쓰였으며, 대부분 삼면 형태로 펼쳐져 어진함을 올린 용상을 에워싸 위엄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들 삼병과 첩병은 행사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단독으로 쓰이거나, 모란병풍 또는 매화병풍이 함께 펼쳐졌다. 모사한 열성 어진의 상설 봉안 공간인 선원전 감실에는 삼면 장자 형태의 오봉병을 당가와 하평상 사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모란·매화 등 복수의 그림 장자를 배치해 감실을 꾸몄다. 한편, 현 황제와 황태자의 어진 봉안처에는 다른 그림병풍의 배설 없이 오봉도를 그린 첩병만을 사용했다. 삼병과 첩병 모두 현 황제의 어진 도사에 사용된 병풍의 크기가 열성어진 모사 때보다 현저히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어진 모사와 도사 작업이 잇따라 행해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황실의 정통성 및 권위의 상징이자 숭배의 대상인 조상에 비해 후손인 현 황제 어진에 대한 의물의 격식을 낮춰 차등을 두었음을 시사한다.

III. 오봉병 유형별 상황과 화풍 분석

삼병은 1900~1902년에 행한 어진 모사·도사와 관련된 다양한 절차를 행하기 위해 적잖은 수량이 제작되어 여러 장소에 배설되었다. 제작 시기와 사용처, 그리고 배설 목적과 기능은 각기 달랐지만, 이 기간 제작된 삼병의 상황 구성과 세부 상황 비단의 색상은 동일했으며, 일부 상황 비단의 종류가 한단(漢緞) 또는 공릉(貢綾)으로 차이를 보일 뿐이었다(Table 1). 이들 삼병은 양사 또는 생초로 된 화본(畫本)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색 무늬 비단으로 회장을 두르고 회장 위로는 금박을 장식해 화려함을 더했으며, 하단의 회장 윗부분[하선(下緘)]에 별도로 남색 무늬 있는 비단을 덧대어 장황하였다.⁴³ 현전하는 『영정모사도감의궤』(1900~1901)의 「도설」은 모두 기록과 같이 자색 회장에 남색 하선을 갖춘 삼병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어진도사도감의궤』(1901~1902)의 '삼병' 도설들은 기록과 달리 녹색 비단 회장을 한 삼병을 그려 차

⁴³ <Table 1>과 이상의 내용은 『영정모사도감의궤』(1899~1900), 『영정모사도감의궤』(1901), 『어진도사도감의궤』(1901~1902)의 「품목」 중 '插屏所入' 내역 참조. 화면과 회장 사이로는 백색과 홍색의 얇은 비단 띠를 둘렀다.

이를 보인다(Figs. 3, 4).⁴⁴ 기록의 지속된 일관성을 고려할 때, 1902년 삼병 도설 제작 시 화원이 이전 오봉병의 선례대로 녹색 회장으로 오인해 그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회장 색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도설들은 모두 세로가 긴 직사각형의 화면 속에 좌우의 적송, 너울거리는 물결 위로 솟은 가늘고 긴 다섯 봉우리, 폭포가 흘러내리는 골짜기 위로 떠 있는 해와 달을 묘사하고 있다.

<Table 1> <삼병의 기능과 장황> Functions and Mounting Materials of the Single-panel Screen (*Sappyǒng*), 1900-1902

Year	Installation Site	Stage / Function	Ground Materials	Mounting Materials
1900	Hüngdǒkchǒn taech'ǒng 興德殿 大廳	angch'ǒm 仰瞻	yangsa 洋紗	hasǒn 下緞 - nam handan 藍漢緞 hoejang 回裝 - chajǒk handan 紫的漢緞 hoejang kūmbak 回裝金箔 - ch'ǒpkūm 貼金 pyǒna 邊兒 - paekpang saju 白方紗紬 - hongbang saju 紅方紗紬
1901	Hüngdǒkchǒn 興德殿	mosa 摹寫	saengch'o 生絹	hasǒn - nam kongnǔng 藍貢綾 hoejang - chajǒk kongnǔng 紫的貢綾 hoejang kūmbak and pyǒna match those of the 1900 <i>Sappyǒng</i>
	Kyǒngundang 慶運堂	Chunwǒnjǒn T'aejo ōjin kwǒnan 潛源殿 太祖御眞 權安	yangsa	hoejang 回裝 - chaji kongnǔng 紫芝貢綾 hasǒn, hoejang kūmbak, and pyǒna match those of the 1900 <i>Sappyǒng</i>
1902	Hamnyǒngjǒn 咸寧殿	yuji ch'obon angch'ǒm 油紙草本 仰瞻	saengch'o	all match those of the 1900 <i>Sappyǒng</i>

⁴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건(奎14000, 奎14001), 한국학중앙연구원 1건(K2-275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건 등 총 4건의 『어진도사도감의궤』 「도설」 모두 삼병의 회장을 녹색으로 칠하고 있다.



Fig. 3. <삽병>, 『영정모사도감의궤』 Illustration of a Single-panel Five Peaks Screen with a Wooden Frame, in *Yŏngjŏng mosa togam ũigwe*, 1900~1901, Korean Empire, Ink and Colors on Pap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s://kyudb.snu.ac.kr>)



Fig. 4. <삽병>, 『어진도사도감의궤』 Illustration of a Single-panel Five Peaks Screen with a Wooden Frame, in *Ŭjin tosa togam ũigwe*, 1901~1902, Korean Empire, Ink and Colors on Pap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s://kyudb.snu.ac.kr>)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도설 속 삽병 그림과 유사한 <일월오봉도 삽병>이 세 점 전하는데, 세 점의 크기와 화풍은 매우 비슷하다(Fig. 5).⁴⁵ 앞 장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삽병은 1900년 태조어진 모사 시 2좌, 1901년 철성조 어진 모사 시 6좌, 1902년 어진 도사 시 2좌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시기별로 크기가 각기 달랐다. 따라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삽병> 세 점은 1901년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⁶ 이들 세 점의 삽병은 1980년대 개장이 이뤄졌는데, 자색 비단 회장에 남색 비단 하선을 한 원 장황의 구성을 미진하게나마 따른 모습이나, 회장 위로 입힌 금박 장식은 사라졌다. 1960년대 후반경 작성된 창덕궁 유물 카드에 붙여진 흑백 사진에서 원 회장의 폭과 회장 위로 일정한 간격으로 입혀진 금박 장식을

⁴⁵ 삽병 세점의 유물번호는 창덕 6421, 창덕 6422, 창덕 6423이다.

⁴⁶ 앞장에서 살핀 것처럼, 1900년의 삽병은 3m가 훨씬 넘고 1902년 삽병은 250cm 내외로 작아 영조척 환산 규격의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현전하는 삽병과 차이가 크게 난다.

확인할 수 있다(Fig. 6). 이 회장 위의 금박은 등근 화관(花瓣) 모양으로, 뒤에서 살필 도쿄국립 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병풍>의 겹꽃 화관 금박과 상당한 유사성을 드러낸다.



Fig. 5. <일월오봉도 삼병> Single-panel Five Peaks Screen with a Wooden Frame, c. 1901, Korean Empire, Colors on Silk, 190×150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Changdŏk 6421 (<https://www.gogung.go.kr>)
 Fig. 6. <일월오봉도 삼병 유물카드 흑백사진> Black-and-white Photograph of a Catalogue Card for a Single-panel Five Peaks Screen with a Wooden Frame, c. 1960s,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일월오봉도 삼병>은 모두 도설에 묘사된 것처럼 세로가 길고 폭이 좁은 직사각형의 나무틀 위로 좌우의 소나무, 화면을 가득 채운 다섯 봉우리와 물결, 해와 달, 폭포로 구성된 일월오봉도의 도상을 압축해 표현하고 있다. 다섯 봉우리의 윗부분은 폭이 좁고 끝이 뾰족해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이며, 가운데 봉우리와 나머지 봉우리의 높이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봉(中峯) 양옆의 봉우리는 마치 뒤에 서서 가운데 봉우리를 향해 살짝 기울인 듯 표현되어 더욱 세장한 느낌을 자아낸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봉우리 사이 골짜기에서 폭포의 물줄기가 나와 하단의 출렁거리는 물결로 떨어지는 모습이 좌우 대칭적으로 묘사되었는데, 위에서부터 세 번 꺾여 내려간 폭포는 화면에 깊이감을 불어넣으면서 시선을 해와 달로 연결시켜 준다. 일렁거리는 물결은 대각선으로 구획한 듯 일렬로 연이어져 있으며, 물결 가운데에는 하얀 물

보라 네 개가 한 쌍씩 마주 보듯이 묘사되어 있다. 가운데 봉우리 앞으로 암석들을 쌓아 올리면서 봉우리의 중간 부근에서 좌우의 암석을 바깥으로 뺀어 내었는데, 꽃받침처럼 가운데 봉우리 윗부분을 받치고 있는 듯한 효과를 지어낸다. 삼병에 나타난 오봉산의 구도와 배치, 연이은 물결의 표현 방식, 가운데 봉우리 앞에 쌓아 올린 작은 암석들의 묘사법 등은 회장 위의 화관 금박 장식과 더불어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병풍>에서 찾아볼 수 있다(Fig. 8).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00~1902년 잇따라 행해진 어진 제작 시 사첩, 육첩, 또는 팔첩으로 된 접고 펼칠 수 있는 첩병이 어진의 임시봉안을 위해 사용되었다. 첩병 형식의 오봉병은 이 기간 오봉병에 나타난 장황 구성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Table 2). 1900년 흥덕전 서운돌에 태조어진을 임시로 봉안할 때 펼친 오봉도 육첩 병풍과 선원전 내 태조어진 신본을 봉안할 제1실을 조성할 동안 기존 어진을 선원전 이안청에 이안(移安)하기 위해 제작한 오봉도 4첩 병풍은 모두 병풍 가장자리를 따라 무늬 없는 녹색 비단(綠方紗紬)으로 회장만을 들렀으며, 회장 위 금박 장식은 생략하였다.⁴⁷ 이러한 장황 방식은 조선 후기 영희전 이안용 병풍의 선례를 따른 것이었다.⁴⁸

<Table 2> <첩병의 기능과 장황> Functions and Mounting Materials of the Folding Screens (*Ch'öppyöng*), 1900-1902

Year	Screen Format	Installation Site	Stage / Function	Ground Materials	Mounting Materials
1900	six-panel	Hüngdöckchön sö ondol 興德殿 西溫突	öjin pongan 御眞 奉安	yangsa 洋紗	hoejang 回裝, 回粧 - nokpang saju 綠方紗紬 pyöna 邊兒 - paekpang saju 白方紗紬 - hongbang saju 紅方紗紬
	four-panel	Sönwönjön Ianch'öng 璿源殿 移安廳	öjin ian 御眞 移安	yangsa	all match those of the above
1901	four-panel	Chunghwajön 中和殿	sinbon öjin pongan 新本 御眞 奉安	yangsa	hasön 下緞 - nam kongnüng 藍貢綾 hoejang - chaji kongnüng 紫芝貢綾 hoejang kümbak 回裝金箔 - ch'öpküm 貼金 pyöna match those of the above

47 『영정모사도감의궤』(1899~1900), 「품목」, 庚子二月初三日, 五峰山屏六貼一坐每貼所入.

48 손명희, 앞의 논문 (2023), pp. 100-121.

1902	eight-panel	Hūmmun'gak 欽文閣	ōjin pongan 御眞 奉安	saengch'o 生綃	sanghasōn 上下縵 - nam handan 藍漢緞 hoejang - chajōk handan 紫的漢緞 hoejang kūmbak and pyōna match those of the above
	four-panel	Sōgyōng Kwansa 西京 館舍	ōjin ian 御眞 移安	saengch'o	hasōn 下縵 - nam mobondan 藍模本緞 hoejang - ch'orok mobondan 草綠模本緞 hoejang kūmbak and pyōna match those of the above

1901년 칠성조 어진 신본(新本)의 중화전 임시 봉안을 위해 신조된 오봉도 사첩 병풍은 ‘녹색 회장’이란 기존 첩병 형식 오봉병의 장황 전통에서 변화를 보여주었다.⁴⁹ 녹색 비단 회장만을 두른 영회전의 오봉도 사첩 병풍 및 1900년 태조어진 모사 때의 육첩·사첩 오봉병과 달리, 중화전 오봉도 사첩 병풍은 회장에 자지공룡을 사용하고 그 위로 금박 장식을 입혔다. 이에 더해 화면 하단에 별도의 남공룡 비단을 덧댄 하선이 새롭게 나타났다.⁵⁰ 1902년 도사를 마친 고종 어진과 순종 예진의 정본(正本)을 봉안한 흠문각 배설 오봉도 팔첩 병풍은 자적한단으로 회장을 두르고, 화면 아래(하선)뿐 아니라 위(상선)에도 남한단을 덧대었다.⁵¹ 건립 중인 서경 행궁 봉안을 목적으로 고종어진과 순종예진 1본씩을 서경 관사에 임시로 봉안하는데 쓰인 오봉도 사첩 병풍의 경우, 하선을 덧댄 변화상을 보이면서도 회장에 자색이 아닌 전통적인 녹색 비단을 두른 후 그 위로 금박을 장식했다.

이렇듯 1901년을 기점으로 첩형식의 오봉병은 기존 녹색 회장이란 선례를 고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색 회장의 사용과 상선·하선의 추가와 같이 장황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여러 장황 방식이 혼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제국의 성립과 서구문물의 급격한 수용이란 사회경제적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과거에는 홍색 염료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홍색 비단이 매우 비쌌는데, 조선 왕실은 사치풍조 방지를 위해 홍색을 자제하고 녹색 비단으로 오봉병과

49 최근 보존처리를 통한 보존과학계의 오봉병 장황 연구성과와 문헌 기록을 종합해 오봉병이 사용된 의례와 공간에 따라 크기와 형태는 달랐으나 대체로 도상적 특징과 초록 비단 회장을 동일하게 유지했음을 고찰한 연구는 박윤희, 「궁중 의례 용 일월오봉도 병풍의 장황에 관한 고찰: 초록색 비단 장황과 금박 장식을 중심으로」, 『문화재』 55, no. 1 (2022), pp. 243-263.

50 『영정모사도감의궤』 (1901), 「품목」, 庚子十二月十八日, 五峯屏四貼七坐每貼所入.

51 『어진도사도감의궤』 (1901-1902), 「품목」, 壬寅四月十一日, 五峯山屏八貼二坐每貼新造所入. 이 의궤의 「도설」에는 앞서 삼병의 경우처럼 기록과 달리 녹색 회장에 상선 없이 하선의 남색 비단만을 갖춘 병풍을 묘사하고 있다.

어람용 의례 표지 등을 제작했다.⁵² 그런데 대한제국 성립을 기점으로 어람용 의례 표지 상황의 경우 기존 초록색만 있던 것에서 황색과 홍색 표지가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를 보였다.⁵³ 오봉병에 자색 비단 회장과 상·하선이 등장한 것도 사회체제의 변화와 함께 구한말 급속한 서구문물의 수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직물들이 들어오며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⁵⁴

현존 첩병 유형의 오봉병들 가운데 대한제국이 어진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형식인 사첩, 육첩, 팔첩의 병풍들이 여러 점 전해진다. 이들 오봉병과 1900~1902년의 의례 기록을 비교할 때, 장황에 있어 회장만을 갖춘 오봉도 육첩 병풍 및 140cm가량의 낮은 높이에 상·하선을 모두 갖춘 오봉도 팔첩 병풍은 현재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1900~1902년 동안 가장 많이 제작된 오봉도 사첩 병풍 중 1901년 중화전 배설 오봉도 사첩 병풍의 장황 구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병풍이 도쿄국립박물관에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일월오봉도 병풍〉은 좌우 각 1폭이 좁고 가운데 두 폭이 넓은 4첩 병풍으로 조선 후기 영희전 오봉도 사첩 병풍과 같은 형태이다(Fig. 8). 그러나 자주색 비단 회장과 그 위의 금박 장식, 남색 비단 하선은 영희전을 비롯한 기존 어진 이안에 쓰인 오봉병과 차이를 보이며, 중화전 배설 오봉도 사첩 병풍의 장황에 대한 기록과 일치한다. 자색 회장 위에 금박으로 입힌 겹꽃 모양의 화문(花紋)은 앞서 살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일월오봉도 삼병〉의 개장 전 모습을 담은 과거 흑백 사진에 포착된 회장 금박 장식과 거의 같다(Fig. 6).⁵⁵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병풍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일월오봉도 삼병〉의 화풍과도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일월오봉도 병풍〉의 화풍에 나타난 특징을 시대성 속에서 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능과 형식을 한 오봉병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⁶

52 박윤희, 앞의 논문, pp. 254-255.

53 김문식, 「〈의례사목〉에 나타나는 의례의 제작 과정」, 『규장각』 37 (2010), p. 176. 대한제국기 어람용 의례는 황제, 황태자, 후비를 대상으로 3가지 종류가 만들어지며 황색, 홍색, 녹색으로 위계에 차등을 두었다.

54 Table 1과 Table 2에서 확인되듯, 오봉병 화본에 서양 비단, 장황에 중국비단이 사용되었다. 또, 1900년 육첩 및 사첩 오봉병, 1902년 서경관사 사첩 오봉병의 의차(衣次)에 양목(洋木)을 쓰기도 했다.

55 이러한 겹꽃 화문 금박 장식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어보 보자기의 직물 위를 장식한 금박 문양에서도 찾아진다. <금박 소화문단 어보 보자기>(종묘14836, 종묘15327, 종묘18649 등). 이러한 겹꽃 금박 무늬는 신선원전 감실 당가오봉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56 정전인 경복궁 근정전과 덕수궁 중화전 내 당가 오봉병은 세부적 양식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 형식과 구도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의례 공간 속에서 동일한 기능을 한 병풍은 선례를 가급적 준용하며 유사한 형식적 특징을 보여주기, 시대적 화풍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능과 형식을 한 병풍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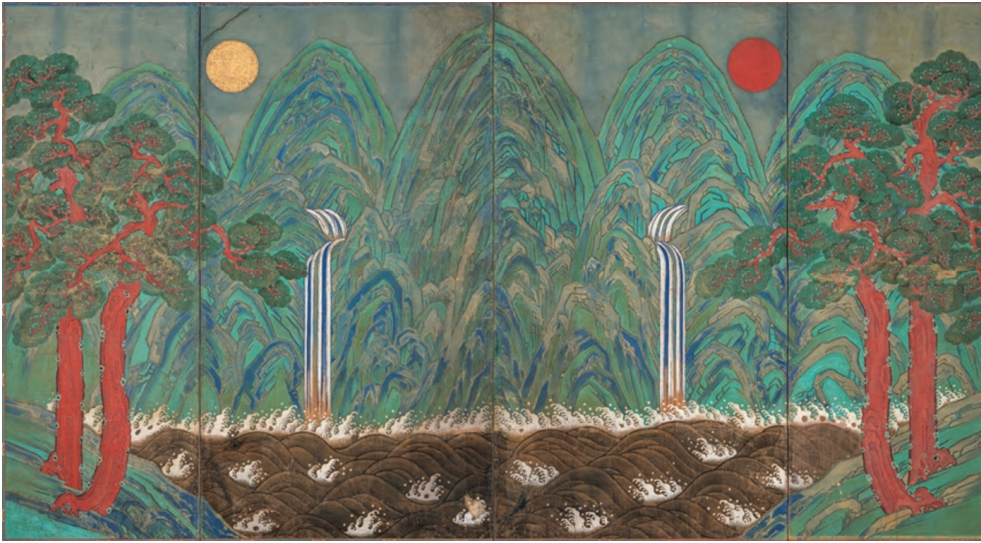


Fig. 7. <일월오봉도 병풍> Four-panel Five Peaks Folding Screen, c. 1858, Chosŏn, Colors on Silk, 247.7×438.2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현존 오봉도 4첩 병풍 중 최근 창덕궁 인정전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된 <일월오봉도 병풍>은 병풍 형식 및 장황의 특징과 병풍틀에 배접된 감시낙폭지의 분석을 통해 1858년경이란 제작 시기와 영희전 이안칭 병풍으로 사용처가 특정된 바 있다(Fig. 7).⁵⁷ 어진의 임시 봉안 용이란 점과 가운데 폭이 넓고 좌우 각 1폭이 좁은 형태가 도쿄국립박물관과 동일하다. 이 병풍은 가운데 두 폭에 봉우리 세 개를 그리고 폭의 경계 끝에 해와 달을 배치했으며, 좌우 각 1폭에 나머지 봉우리 하나씩과 두 그루의 적송을 그려 넣었다. 각진 필선으로 윤곽 지어진 다섯 봉우리는 긴 타원형을 하고 있는데, 물 위로 솟아올라 중첩되어 쌓아 올려진 암석들이 각 봉우리의 끝까지 표현되어 봉우리에 괴량감과 깊이감을 부여하고, 거대한 다섯 봉우리로 이뤄진 오봉산의 웅대함을 강조해준다. 이를 통해 해당 병풍은 웅장한 오봉산이 화면을 꽉 채우며 압도하는 듯한 모습이다. 화면 하단 물결 표현의 경우, 오봉산과 마주하는 경계뿐 아니라 너울거리는 물결 사이 사이로도 하얗게 일어나는 물보라를 일정 간격으로 촘촘히 묘사하고 있다.

⁵⁷ 손명희, 앞의 논문 (2023), pp. 112~114. 이 병풍과 거의 동일한 형식과 화풍, 크기를 보여 영희전 병풍으로 추정되는 것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창덕6410으로 전해진다.



Fig. 8. <일월오봉도 병풍> Four-panel Five Peaks Folding Screen, c. 1901, Korean Empire, Colors on Silk, Tokyo National Museum (<https://colbase.nich.go.jp>)

Fig. 9. <일월오봉도 병풍 유리건판> Glass Plate Negative of Four-panel Five Peaks Folding Scree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ttps://emuseum.go.kr>)

이와 대조적으로, 1901년으로 추정되는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은 물결 표현의 비중이 높아지고 가운데 두 폭에 다섯 봉우리를 모두 담아내며 오봉산이 왜소해진 듯한 인상을 준다(Fig. 8). 봉우리들은 꼭대기에서 좌우 능선이 곧게 뻗어 내려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중봉과 나머지 봉우리의 높이 차이가 두드러진다. 또, 두 번째 네 번째 봉우리가 가운데 봉우리를 향해 살짝 기울어져 있다. 1858년경 영희전 이안용으로 제작된 국립고궁박물관

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에서 봉우리마다 커켜이 쌓여 올라가던 암석들의 표현이 도쿄국립 박물관 병풍에서는 가운데 봉우리의 앞에서 별도로 솟아오른 듯한 모습으로, 봉우리 중간 부분에서 좌우로 뻗은 암석을 과장되게 표현하며 꽃받침처럼 가운데 봉우리의 윗부분을 받치고 있는 듯 그려낸 점도 특징적이다. 물결 표현에 있어서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병풍이 물결의 자연스러운 묘사와 촘촘한 물보라의 배치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병풍은 대각선으로 구획한 듯 일렬로 물결을 연이어 그리고 물결과 오봉산이 만나는 부분에도 폭포가 떨어지는 좌우로만 물보라를 형식적으로 그려 넣으며 드문드문 묘사하였다. 이러한 물결과 물보라의 표현은 같은 시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삼병>과 비교해도 간략화·형식화된 양상이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칠성조 어진 신분을 중화전에 봉안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중화전이 좁아 기존 홍덕전에 사용했던 삼병 7좌를 쓸 수 없게 됨에 따라, 오봉도 사첩 병풍 7좌를 급히 제작하면서 범본이 된 오봉병의 화풍을 단순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 유리건판>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과 동일한 구도와 화풍, 장황 방식, 겹꽃 모양의 화문 금박 장식을 한 4첩 병풍을 보여준다(Fig. 9).⁵⁸ 따라서, 당시 중화전에 칠성조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병풍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왕직이 기증했다고 알려진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의 병풍들은 앞장에서 살핀 바처럼 경운궁 선원전의 중건이 완료됨에 따라 중화전에서 선원전 이안청으로 옮겨졌기에 일제강점기 경운궁 선원전의 훼손 과정에서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02년 서경 관사에서 고종어진과 순종예진을 임시 봉안하는데 사용된 오봉도 사첩 병풍의 장황처럼 녹색 비단 회장에 금박을 입혀 장식하고 남색 비단으로 하선을 덧댄 예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창덕 6413)의 과거 보수 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Fig. 10). 봉우리 정상에서 직선으로 곧게 뻗어 내린 양쪽 능선의 표현, 중앙 봉우리를 향해 살짝 기울어진 두 번째 네 번째 봉우리, 대각선으로 일렬로 배치된 물결의 모습 등에서 앞서 살핀 삼병 및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병풍과 화풍상 유사성을 드러내면서도,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병풍보다 좀 더 공들여 그린 면모를 보인다.

5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3500. 물거품의 묘사에서 도쿄국립박물관 소장본과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Fig. 10. <일월오봉도> Four-panel Five Peaks Folding Screen, Early 20th Century, Korean Empire, Colors on Silk, 231.8×497.2cm,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Changdŏk 6413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Fig. 11. <신선원전 제3실 오봉병 정면과 왼쪽 측면 내·외협> Front-panel and Left Side Panels of the Five Peaks Screen for the Third Chamber of New *Sŏnwŏnjŏn*, Late 19th Century, Colors on Silk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선조의 어진 모사가 완료되어 선원전에 봉안할 때는 삼면 장자 형태의 당가오봉병을 사용해 상설 감실 공간을 조성하였다. 1900년 준원전 태조어진을 모사한 신분을 경운궁 선원전 정전 제1실에 모시기 위해 제작한 당가오봉병은 상단의 당가와 하평상을 잇는 6개의 기둥(柱木)

사이로 뒤와 좌우의 삼면을 감싸는 나무틀 8개(貼)를 세워 종이로 초배(初楷)한 후, 생초로 된 화본 위에 일월오봉도를 그리고 화본 뒤를 배접해 틀에 붙였다.⁵⁹ 당가오봉병의 정면(正面)과 내협(內挾)으로 이어진 오봉산 그림의 가장자리를 따라 녹한단으로 회장을 두르고 하단의 녹색 회장 밑(下續)과 내협의 옆쪽 가장자리(挾續)에 남한단을 별도로 덧대었다. 그림이 이어지지 않는 단일 구성의 협폭(外挾)은 별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녹색 회장을 했다. 회장에 자적한 단도 사용되었는데, 현전하는 신선원전 감실 안 당가오봉병의 사례를 참조할 때 하선으로 덧댄 남색 비단의 가장자리를 따라 회장을 두른 것으로 보인다. 병풍의 녹색 회장 위로는 머름모꼴을 형성하는 꽃잎(花瓣) 모양의 금박을, 내협에 덧댄 협선의 남색 비단 위로는 구름과 용(雲龍) 무늬 금박을 붙여 꺾내 진전인 선원전의 위상과 화려함을 더했다. 비록 이듬해 바로 소실되었으나, 이상의 1900년 경운궁 선원전 제1실 당가오봉병의 구조와 장황에 대한 기록은 일제강점기인 1921년 세워져 현전하는 신선원전의 당가오봉병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Fig. 11).

1901년 4월 27일(음력) 새로 모사한 칠성조 어진을 증건(重建)한 경운궁 선원전에 봉안했다.⁶⁰ 앞서 밝힌 바처럼, 증건한 선원전 정전 내 감실 구성을 위해 기존 경복궁 선원전의 당가오봉병 7좌를 당가 및 하평상 각 7좌와 함께 옮겨와 수리해 설치했다. 1900년 창덕궁과 경복궁의 선원전에 각각 제1실(태조실)을 증건(增建)할 당시 조성된 경복궁 제1실의 당가오봉병은 소실된 1900년 경운궁 선원전 제1실용 당가오봉병과 동일한 형식과 상황이었다.⁶¹ 1901년 3월 경복궁에서 옮겨온 당가오봉병 7좌를 수보(修補)하며 기존 상황을 다시 바꿨으나, 하선과 협선에 남한단, 회장에 녹한단과 자적한단을 사용하고 협선과 회장 위로 각각 운룡 금박과 화관 금박을 입힌 점이나 배접 종이의 종류도 1900년 선원전 당가오봉병과 동일하였다.⁶² 이후, 1901년 경복궁에서 증건된 경운궁 선원전으로 옮겨진 당가오봉병은 고종 장례 기간 경운궁 선원전의 훼손 과정에서 1921년 조성한 창덕궁 신선원전으로 다시 옮겨져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⁶³ 이는 현 신선원전 감실 내 당가오봉병의 구성과 장황 방식이 1900년의 선원전 및 경복궁 당가오봉병에 대한 기록과 거의 일치하는 점을 설명해 준다.

59 『영정모사도감의례』(1900), 「품목」, 唐家一坐所入; 唐家五峰屏八貼一坐每貼所入. 이하 장황에 대한 설명도 동 각주 참조.

60 위의 책, 「時日」, 辛丑四月二十七日.

61 『增建都監儀軌』(1900), 「稟目」, 庚子八月二十日, 庚子九月十三日. 증건된 창덕궁·경복궁 제1실 당가오봉병의 장황은 선차 남한단, 회장차 초록한단·자적한단, 백방사주·홍방사주, 협선 운룡문금박차 첩금, 회장화관금박차 첩금.

62 『영정모사도감의례』(1900-1901), 「품목」, 신축삼월십이일, 五峯屏七坐每坐修補所入.

63 손명희, 앞의 논문 (2021), p. 48.



Fig. 12. <신선원전 제1실 오봉명 세부> Detail of the Five Peaks Screen for the First Chamber of New *Sŏnwŏnjŏn*, c. 1900, Colors on Silk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Fig. 13. <신선원전 제2실 오봉명 세부> Detail of the Five Peaks Screen for the Second Chamber of New *Sŏnwŏnjŏn*, Late 19th Century, Colors on Silk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현 신선원전 감실의 당가오봉병들은 모두 정면에 다섯 봉우리를 담아내고 대칭적으로 흘러 내리는 폭포의 위치에 맞춰 상단에 해와 달을 배치했으며, 내협에는 나머지 여륙과 적송을 그렸다. 전반적 구성은 유사하나, 제1실의 당가오봉병은 제2실~제12실의 당가오봉병과 뚜렷한 화풍상의 차이를 드러낸다(Fig. 12). 제2실~제7실과 제8실~제12실이 또다시 화풍상 구분될 수 있지만, 이들 11개실의 당가오봉병 봉우리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타원형이며 양쪽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린 폭포는 세 번 꺾어 돌아 아래로 쏟아지고 있다(Figs. 11, 13). 이와 대조적으로, 제1실의 당가오봉병은 각 봉우리의 양쪽 능선이 곧게 뻗어 내려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가운데 봉우리와 나머지 봉우리의 높이 차이가 두드러진다. 폭포는 다른 실의 당가오봉병들과 달리 두 번 꺾어 돌아 쏟아져 내리고 있다. 각 봉우리는 꼭대기까지 암석이 중첩되어 쌓아 올려진 모습을 표현했으나, 앞서 살핀 19세기 중엽 영회전 이안청 병풍으로 제작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 및 신선원전 제2실~제7실의 당가오봉병에 비해 소략하게 묘사해 오봉산의 괴량감과 웅장함은 줄어들었다.⁶⁴ 대신, 중봉 양쪽 봉우리들의 크기를 축소해 일월오봉도 도상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더 조화로운 배치를 보이고 넓은 공간감을 드러내 준다. 한편, 19세기 중엽 및 후반에 제작된 오봉병과 달리, 가운데 봉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봉우리를 낮추고 작게 한 표현은 1899년 황제권을 공법으로 명문화하고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며 황제권 강화를 추진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듯하다.⁶⁵

제1실 당가오봉병에 보이는 뾰족하고 세장해진 봉우리의 표현과 두 번 꺾어 돌며 쏟아지는 폭포, 그리고 가운데 봉우리 앞으로 암석을 쌓아 올리다가 중간부에서 가장자리 암석을 좌우로 길게 뻗은 표현은 간략화되어 1901년 중화전 배설 병풍으로 추정된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병풍>에 나타난다. 이상은 신선원전 제1실의 당가오봉병이 1900년 경복궁 제1실용으로 제작되었다가, 1901년 중건된 선원전 제1실로 옮겨지고 다시 1921년 신선원전 제1실에 설치되었음을 시사한다. 1900년 경복궁 제1실 조성 당시 오봉병 기화(起畫)에 윤석영과 백희배(1837~1911)가 참여하였다.⁶⁶ 당시 도화주사(圖畫主事)였던 두 사람은 1899년 평락정의 오봉병 및 1900년 영회전 오봉병 기화에 참여했으며, 1900년과 1901년에는 영정모사도

64 신선원전 내 오봉병은 화풍상 크게 1실, 2~7실, 8~12실로 구분되며, 금박은 크게 1~7실이 동일하고 8~12실은 유사성을 드러내며 일부 차이가 있다. 2~7실의 당가오봉병은 19세기 중엽 제작된 영회전 이안청 소용으로 밝혀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처럼 암석을 세밀하게 중첩시키며 봉우리까지 쌓아올려 괴량감을 표현해 내고 있어 제1실과 함께 경복궁 선원전에서 경운궁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신선원전으로 옮겨진 오봉병으로 생각된다.

65 서영희,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4933>).

66 『중건도감의궤』(1900), 「賞典」, 五峯屏起畫.

감의 동참화원으로 활약하였다.⁶⁷ 신선원전 제1실 당가오봉병에 보이는 안정적 구도와 넓은 공간감, 도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조화로운 배치는 이들 숙련된 화원들의 기량이 발휘된 것이라 하겠다.

1901년 증건된 선원전 감실에 배설하기 위해 경복궁 선원전에서 1900년 제작한 제1실 당가오봉병과 함께, 1867년경 경복궁 증건 시 제작되었을 제2~7실용 당가오봉병도 옮겨져 수보되었다.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과 신선원전 제1실 당가오봉병의 화풍상 유사성은 1901년 칠성조 어진 모사 작업이 완료되어 어진 신본을 중화전에 임시 봉안하기 위한 오봉도 사첩 병풍 7좌를 급하게 제작할 당시, 다른 실의 오봉병과 달리 전해에 제작해 상태가 좋고 1901년 당시 어진 모사에 동참화원으로 활약한 윤석영과 백희배가 제작했던 제1실 당가오봉병을 범본으로 참조해 그렸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봉인 가운데 봉우리 좌우의 나머지 봉우리를 낮고 작게 묘사한 오봉도 그림은 유교적 군신 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되어, 황제권의 절대화를 추구한 고종과 정치지도층에게 선호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1900~1902년 어진 제작 관련 의뢰에 기록된 오봉병 유형별 장황 구성과 형태에 대한 내용을 현전하는 유물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삼병> 세 점 및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이 각각 1901년 칠성조 어진 모사 당시 모사처소인 흥덕전과 신본 어진을 임시 봉안한 중화전에 설치한 병풍이며, 이들 병풍과 화풍이 유사하면서도 더 높은 화격을 보이는 <신선원전 제1실 오봉병>이 1900년 경복궁 제1실 증건 당시 조성된 당가오봉병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이들 오봉병은 삼병, 첩병, 당가오봉병으로 유형이 달랐으나, 봉우리 정상에서 양쪽 능선이 직선처럼 곧게 뻗어 내리는 모습, 가운데 봉우리와 나머지 네 봉우리의 두드러진 높이 차이 등에서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특히, 도교국립박물관 소장 병풍은 <신선원전 제1실 오봉병>을 간략화해 제작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들 병풍에 나타난 가운데의 주봉(主峯)과 나머지 봉우리들의 두드러진 높이 차이, 주봉을 향해 기울어진 듯한 좌우 봉우리의 모습은 전제적 황제권의 강화를 추진해 가던 당시 시대상의 표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67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9월 28일 계유; 고종 37년 5월 2일 임인; 고종 38년 5월 24일 무자.

IV. 결론

본 논문은 고종이 황제권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 1900~1902년에 이뤄진 어진 제작 관련 기록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이 시기 다양한 오봉병의 유형과 형태, 기능, 장황 방식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전하는 유물과 비교함으로써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봉병을 확인하고 화풍의 양상을 살폈다. 이 시기 어진 제작에는 삼병, 첩병, 삼면 장자 형태의 당가오봉병이 사용되었다. 삼병은 어진 제작과 관련해 새롭게 나타난 유형으로, 어진 모사 시 사용된 패봉기처럼 전봉 장치를 설치했으나 일월오봉도와 비단 장황으로 의물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추어 어진을 펼쳐 모시는 물리적 기능과 함께 펼친 어진의 위엄과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물로 기능하였다. 이에, 삼병은 태조어진 신·구분에 대한 고종과 신하들의 앙심을 위해 배설되기 시작해, 이후 어진의 임시 봉안 공간 조성 및 유지초본 봉심에도 사용되는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오봉도를 그린 첩병풍은 사첩, 육첩, 팔첩으로 다양한 형식을 보였으나 모두 어진의 임시 봉안만을 위해 배설되었으며, 대개 삼면 형태로 펼쳐져 어진함을 올린 용상을 에워쌌다. 이 시기 첩형식의 오봉병은 기존 녹색 회장이란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색 회장의 사용과 상선·하선의 등장과 같이 장황 구성에 있어 변화상을 보였으며, 여러 장황 방식을 혼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장자 형태의 당가오봉병은 모사한 선조 어진의 선원전 봉안 시 당가 및 하평상과 함께 설치되어 상설 감실 공간을 조성했는데, 형태와 장황 구성이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이상의 기록과 남아 있는 오봉병과의 비교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삼병>, 도묘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이 각각 1901년 칠성조 어진 모사 당시 모사처 소인 흥덕전과 칠성조 신본 어진을 임시 봉안한 중화전에 배설된 병풍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또, 현 신선원전 제1실 당가오봉병이 신선원전 내 다른 실의 당가오봉병들과 화풍상 차이를 보이고, <일월오봉도 삼병> 및 도묘국립박물관 소장 병풍과 화풍상 특징을 공유하면서도 좀 더 높은 화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1900년 경복궁 선원전 제1실 증건 당시 제작되어 1901년 증건된 경운궁 선원전으로 옮겨지고, 고종 장례 기간 경운궁 선원전의 훼손 과정에서 1921년 조성한 신선원전 제1실로 다시 옮겨진 당가오봉병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들 병풍은 유형은 다르나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봉우리, 가운데 봉우리와 나머지 네 봉우리의 두드러진 높이 차이, 대각선으로 구획한 듯 일렬로 연이어 그려진 물결 등에서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특히, 도묘국립박물관 소장 병풍은 <신선원전 제1실 오봉병>을 간략화해 제작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들 병풍에서, 주봉에 비해 낮고 작게 묘사된 나머지 봉우리들과 가운데 봉우리를 향해 기울어진 듯한 좌우 봉우리의 모습은 유교의 군신관계를 형상화하며 전제적 황제권의 강화를 추진해 가던 당시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keywords)_오봉병(five peaks screen), 일월오봉도(painting of the sun, moon, and five peaks), 어진(royal portrait), 장황(mounting), 대한제국기(Korean Empire)

■ 투고일 2025년 8월 3일 | 심사개시일 2025년 8월 4일 | 심사완료일 2025년 9월 7일 ■

참고문헌

1. 사료

- 『璿源譜略修正儀軌』, 1902~1904.
『承政院日記』.
『御眞圖寫都監儀軌』, 1901~1902.
『影幀模寫都監儀軌』, 1899~1900.
『影幀模寫都監儀軌』, 1900~1901.
『朝鮮王朝實錄』.
『增建都監儀軌』, 1900.
『眞殿重修都監都廳儀軌』, 1748.

2. 한국어 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3.
김문식, 「〈의궤사목〉에 나타나는 의궤의 제작 과정」, 『규장각』 37, 2010.
박원희, 「궁중 의례용 일월오봉도 병풍의 장황에 관한 고찰: 초록색 비단 장황과 금박 장식을 중심으로」, 『문화재』 55, no. 1, 2022.
손명희, 「영희전 감실 및 이안소의 공간 구성과 오봉산병풍의 특징」, 『문화재』 56, no. 2, 2023.
_____, 「조선 후기 선원전의 제물과 제기, 의장, 그리고 봉안 어진의 성격과 기능」, 『미술사학연구』 312, 2021.
신명호, 「대한제국기의 어진 제작」, 『조선시대사학보』 33, 2005.
이성미, 「朝鮮王朝 御眞關係 都監儀軌」,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조인수, 「전통과 권위의 표상: 고종대의 태조 어진과 진전」, 『미술사연구』 20, 2016.

3. 데이터베이스

- 서울대학교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이뮤지엄, <https://emuseum.go.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 DB, <https://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

References

1. Primary Sources

Chinjŏn chungsu togam toch'ŏng ŭigwe, 1748.

Chosŏn wangjo sillok.

Chŭnggŏn togam ŭigwe, 1900.

Ŏjin tosa togam ŭigwe, 1901-1902.

Sŏnwŏn boryak sujŏng ŭigwe, 1902-1904.

Sŭngjŏngwŏn ilgi.

Yŏngjŏng mosa togam ŭigwe, 1899-1900.

Yŏngjŏng mosa togam ŭigwe, 1900-1901.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o, Insu (Cho, Insoo). "Chŏnt'ong kwa kwŏnwi ŭi p'yosang: Kojong dae ŭi T'aejo ŏjin kwa chinjŏn." *Misulsa yŏn'gu* 20, 2016.

I, Sŏngmi (Yi, Sŏng-mi). "Chosŏn wangjo ŏjin togam ŭigwe." In *Chosŏn sidae ŏjin kwan'gye togam ŭigwe yŏn'gu*. Sŏngnam: Han'guk chŏngsin munhwa yŏn'guwŏn, 1997.

Kim, Munsik (Kim, Munsik). "Ŭigwesamok e nat'ana nŭn ŭigwe ŭi chejak kwajŏng." *Kyujanggak* 37, 2010.

Kungnip kogung pangmulgwa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Kukyŏk yŏngjŏng mosa togam ŭigwe*. Sŏul: Kungnip kogung pangmulgwan, 2013.

Pak, Yunhŭi (Park, Yoonhee). "Kungjung ŭirye yong irwŏrobongdo pyŏngp'ung ŭi changhwang e kwanhan koch'al: ch'oroksaek pidan changhwang kwa kŭmbak changsik ŭl chungsim ŭro." *Munhwajae* 55, no. 1, 2022.

Sin, Myŏngho (Shin, Myung-ho). "Taehan chegukki ŭi ŏjin chejak." *Chosŏn sidaesa hakpo* 33, 2005.

Son, Myŏnghŭi (Son, Myenghee). "Chosŏn hugi sŏnwŏnjŏn ŭi chemul kwa chegi, ŭijang, kŭrigo pongan ŏjin ŭi sŏnggyŏk kwa kinŭng." *Misulsahak yŏn'gu* 312, 2021.

_____. "Yŏnghŭijŏn kamsil mit ianso ŭi konggan kusŏng kwa obongsan pyŏngp'ung ŭi t'ŭkching." *Munhwajae* 56, no. 2, 2023.

3. Database

Chosŏn wangjo sillok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E myujiŏm, <https://emuseum.go.kr>

Han'guk kojŏn chonghap DB (Database for Korean Classics), <https://db.itkc.or.kr/>

Han'guk minjok munhwa taebaek kwa sajŏ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s://encykorea.aks.ac.kr/>

Han'guk'ak chungang yŏn'guwŏn Han'guk'ak tijit'ŏl ak'aibŭ (The Academy for Korean Studies),
<http://yoksa.aks.ac.kr/main.jsp>

Sŏul taehakkyo kyujanggak wŏnmun kŏmsaek sŏbisŭ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s://kyudb.snu.ac.kr/>

Sŏngjŏngwŏn ilgi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http://sjw.history.go.kr/main.do>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종이 황제권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 1900~1902년에 잇따라 이뤄진 어진 제작 관련 의궤 기록을 토대로, 어진 제작 절차 및 장소에 따른 오봉병의 유형과 기능을 고찰하고 유형별 오봉병의 장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존 유물과 비교함으로써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봉병을 확인하고 화풍의 양상을 살폈다. 이 시기 어진 제작을 위해 삼병, 첩병, 삼면 장자 등 다양한 유형의 오봉병이 사용되었다. 삼병은 어진 제작과 관련해 새롭게 나타난 유형으로, 어진 모사 시 사용된 껍봉기처럼 전봉 장치를 설치했으나 일월오봉도와 비단 장황으로 의물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갖추어 어진을 펼쳐 모시는 물리적 기능과 함께 어진의 위엄과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물로 기능하였다. 이에, 삼병은 고종과 신하들의 어진에 대한 양침을 위해 배설되기 시작해, 어진의 임시 봉안 공간 조성 및 유지초본 봉심에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 첩병풍은 사첩, 육첩, 팔첩으로 다양한 형식을 보였으나 모두 어진의 임시봉안만을 위해 배설되었다. 이 시기 첩병형식의 오봉병은 기존 녹색 회장이란 전통을 고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색 회장의 사용과 상선·하선의 등장과 같이 장황 구성에 있어 변화상을 보였다. 모사된 어진의 선원전 봉안 시에는 삼면 장자 형태의 당가오봉병이 상설 감실 공간을 조성했으며, 동일한 장황 구성이 지속되었다.

이상의 문헌 기록 분석 내용과 현존 오봉병을 비교함으로써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삼병>,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일월오봉도 병풍>이 각각 1901년 칠성조 어진 모사 당시 모사처소인 흥덕전과 칠성조 신본 어진을 임시 봉안한 중화전에 배설된 병풍이며, <신선원전 제1실 오봉병>이 1900년 경복궁 선원전 제1실 증건 당시 제작되었다가 1901년 증건된 경운궁 선원전으로 옮겨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들 병풍은 삼각형에 가까운 모습의 봉우리, 가운데 봉우리와 나머지 네 봉우리의 두드러진 높이 차이, 대각선으로 구획한 듯 일렬로 연이어 그려진 물결 등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병풍은 <신선원전 제1실 오봉병>을 간략화해 제작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들 병풍에 묘사된 주봉에 비해 낮고 작은 나머지 봉우리들, 가운데 봉우리를 향해 기울어진 듯한 좌우 봉우리의 모습은 유교적 군신관계를 형상화하며 전제적 황제권의 강화를 추진한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Study of the Five Peaks Screens in Relation to Imperial Portrait Production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Son, Myenghee*

This study examines the production and use of the Five Peaks Screens (*obongbyöng*) in relation to imperial portrait (*öjin*) making between 1900 and 1902, when Emperor Kojong actively pursued the reinforcement of imperial authority. Drawing on records from the *üigwe* (royal protocols) concerning portrait production, the research analyzes the types and functions of the Five Peaks Screens according to their placement in the portrait-making procedures and further investigates their mounting styles. By comparing these textual accounts with extant artifacts, the study identifies the screens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at the time and explores their stylistic features.

During this period, various types of Five Peaks Screens were employed, including single-panel screens with wooden frames (*sappyöng*), folding screens (*ch'öppyöng*), and three-sided partition panels (*sammyön changja*). The *sappyöng* represented a newly emerging type that, like the portrait hanging equipment (*kwaebonggi*) used in portrait production, incorporated special devices capable of unfurling portraits from the top. Combining the sun, moon, and five peaks imagery with silk mounting, the *sappyöng* functioned not only as a ceremonial object embodying dignity and authority, but also as a practical tool for enshrining and displaying the imperial portrait. Its functions extended from official viewing ceremonies to temporary enshrinement and the inspection of underdrawings. By contrast, *ch'öppyöng* screens of four-, six-, or eight-panel formats were installed exclusively for temporary enshrinement. Their mounting practices shifted from the traditional use of narrow green silk strips at the edges to the use of purple silk strips and the addition of wide blue silk along the upper or lower borders. The three-sided Five Peaks Screens, used in the imperial portrait hall (*Sönwönjön*), consistently maintained their established mounting styl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the three single-panel Five Peaks Screens in the

* Division Direct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nd the four-panel Five Peaks Screen in the Tokyo National Museum were produced for the 1901 copying of the seven imperial portraits and were installed respectively in Hüngdökchön (for the portrait copying process) and in Chunghwajön (for temporary enshrinement). Meanwhile, the three-sided Five Peaks Screen in the first chamber of the New Sönwönjön was initially produced for the 1900 reconstruction of the Sönwönjön in Kyöngbökkung and was later moved to the newly rebuilt Sönwönjön in Kyöng'ungung (present-day Töksugung) in 1901. These screens share stylistic traits such as triangular-looking peaks with strait ridges, distinct height contrasts between the central and side peaks, and diagonal wave patterns arranged in succession. In particular, the Tokyo National Museum screen appears to simplify the three-sided Five Peaks Screen of the New Sönwönjön's first chamber. The lowered rendering of the four flanking peaks, inclined toward the central peak, is interpreted as a symbolic visualization of Confucian monarch-subject relations, and as reflecting the ideological climate of strengthening autocratic imperial power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